

홈 레코딩, 시작부터 구성까지 (Feat. FL Studio)

글. 김병문 SBS 편집기술팀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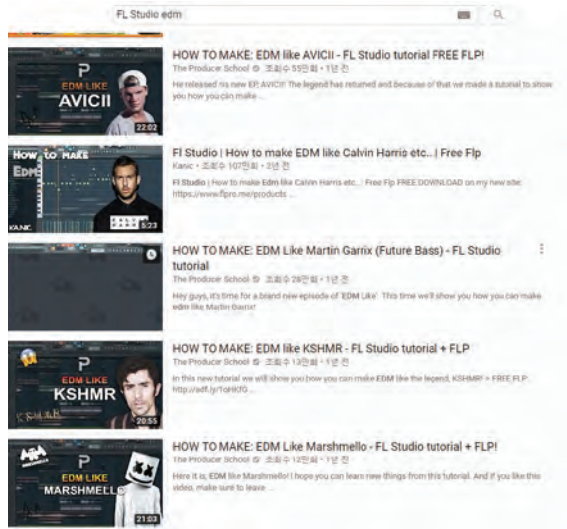
스마트 폰의 등장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 구조와 마케팅 환경, 개인의 생활패턴 등 다양한 방면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변화의 바람에 직면해 있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접한 ‘2019 트렌드 노트’라는 책에서 2019년 주목해야 할

트렌드 중 하나로 YouTube를 꼽았다. 책에서는 미디어 지각 변동의 중심에 YouTube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시사점에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었다. 지상과 방송국을 다니며 YouTube를 칭찬하는 것이 조금은 배가 아프기도 하다. 그렇지만 YouTube의 다양한 콘텐츠 중 교육적인 콘텐츠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이고 YouTube의 순기능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교육적인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한 신규 유저의 유입으로 이용자 및 개인별 일일 시청 시간이 늘고 있다고 필자는 조심스레 생각한다. 예전에는 요리, 외국어, 메이크업, 운동, 악기 연주 같은 것들을 일반인이 집에서 책만 가지고 배우기에는 진도가 더디고 완벽한 습득에 한계가 있었다. 독학을 넘어서는 의욕과 관심이 있다고 해도 전문적인 학원을 등록하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컸다. 이 때문에 이내 망설이다 시작도 못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YouTube라는 컴퓨터 + TV + 모바일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부담 없이 출퇴근 시간, 여가, 잠들기 전 자투리 시간까지 쉽게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취미를 배우는 데 그 문턱이 낮아졌다.

필자는 이러한 Youtube의 접근성과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3년 전 홈 레코딩 채널의 콘텐츠와 부가적으로 관련 음악 도서 몇 권을 탐독하면서 부담 없이 홈 레코딩에 입문할 수 있었다. 당시 홈 레코딩 관련 채널은 대부분 외국 채널들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유명 채널도 많이 생겼고, 채널의 구독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국내에도 이러



간단히 사용하는 DAW Tool과 장르를 검색하면 수많은 Tutorial 영상이 나온다

→ 마스터링 단계를 모두 거쳐, 재생 가능한 단일 음악 파일로 만들기까지 행해지는 일련의 작업을 통틀어 이야기한다. 작곡 단계에서는 먼저 머릿속의 영감을 간단한 코드 진행과 멜로디로 나타낸다. 각 파트에 맞는 샘플링과 일을 활용하거나, 가상 악기 혹은 직접 연주 후 녹음한 파일을 통해 여러 개의 악기 및 보이스 세션을 구성한다.

한 홈 레코딩과 관련된 생산적인 음악 취미가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홈 레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채널은 그림과 같다. 먼저 작곡 관련 음악 지식으로는 MayFlwr, Zen World, Alex Rome, OTHANQ 채널을, 믹싱과 마스터링 쪽으로는 In The Mix, Alan JS Han, W.A. Production, 김도현 대림대 교수 채널을 추천한다. 또한 그때그때 음악적 영감이 필요하거나 특정 장르 풍의 음악의 구성을 알고 싶다면 검색을 통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홈 레코딩의 정의는 가정이나 소규모 공간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며, 음악적인 부분부터 기술적인 부분까지 두루두루 섭렵하여 작곡 → 믹싱



여러 악기로 이루어진 세션 예

믹싱 단계에서는 세션의 각 채널을 DAW의 가상 Mixer로 보내 세션들을 적절한 밸런스로 믹스한다. 또한 Equalizer, Reverb, Chorus, Compressor와 같은 Effect를 활용해 악기의 풍성함과 명료함을 더한다. 마지막 마스터링 단계에서는 믹싱을 통해 완성된 스테레오 채널에 Multi Band Compressor, Multi Band Equalizer, Limiter, Stereo Shaper 등의 Effect Tool을 활용해 곡 전체에 통일감과 완성도를 높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AV나 MP3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에서 Sampling rate, Quantize Bit가 변환되면서 손실될 정보들을 고려하여 최종 파일과 작업 완성본의 느낌이 다르지 않도록 미리 보상한다.

DAW 선택하기

홈 레코딩 구성에 앞서 자신에게 맞는 DAW 선택부터 해야 한다. DAW는 Digital Audio Workstation의 약자로 NLE와 비슷하지만 보다 오디오에 특화되어 Sampling rate 단위의 미세한 편집과 작곡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물론 요즘에는 동영상 파일도 지원한다) Premiere, Final Cut Pro, Davinci Resolve 같은 동영상 편집 툴 사이에서도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DAW 내에서도 각기 제품별로 특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녹음 실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Protools, Pyramis, Fairlight와 같은 DAW는 멀티 트랙으로 녹음된 여러 소스를 수정하고 믹싱, 마스터링 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가상 악기보다 실제 연주와 녹음을 통해 밴드 믹싱과 같은 부류의 홈 레코딩을 하실 분에게 추천한다. 반면 CUBASE, LOGIC, StudioOne, FL Studio와 같은 프로그램은 DAW 중에서도 Sequencer라고 불린다. DAW 내에서 Midi 정보를 기록하거나 불러들여 사용하는 가상 악기 위주의 홈 레코딩에 많이 사용된다. 또한 코드 구성과 멜로디 라인을 만드는 데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며 음악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보조 도구들을 제공한다.



FL Studio 공식 홈페이지의 각 Edition별 판매가격

이 중 필자가 사용하고 있고 또 추천하는 DAW는 FL Studio라는 Sequencer이다. FL Studio는 Windows와 Mac 모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격이 대체로 저렴하다. 또한 한번 구입 시 Lifetime Free Upgrade라는 정책 덕분에 평생 계속해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LOGIC도 얼마 전부터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FL Studio는 곡의 구성을 Pattern이라는 마디 반복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코드 반복이 많은 장르인 EDM과 Hip Hop에 최적화되어 있다.

FL Studio의 Edition은 Fruity, Producer, Signature, All Plugins Bundle까지 총 4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 중 Audio Clip 편집에 제한이 있는 Fruity Edition을 제외하면 나머지 Edition의 경우 포함된 VST Plugin의 개수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난다. Producer Edition 정도면 홈 레코딩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VST Plugin을 갖고 있다. 상위 등급일수록 추가적인 VST 가상 악기와 이펙트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타사의 VST Plugin도 무료이거나 더 좋은 것이 많으므로 비싼 Edition을 선택 구매하기보다는 각자의 니즈에 맞게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홈 레코딩 장비 구성 Tip

홈 레코딩 시 쾌적한 작업환경을 구상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핵심적인 요소는 컴퓨터의 성능이다. 물론 일반적인 랩톱 컴퓨터로도 초반 가벼운 작곡 정도는 충분히 작업할 수 있지만 트랙이 추가되고 다양한 VST Plugin류의 Effect들과 가상 악기 채널이 늘어나게 되면 시스템이 상당히 느려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믹싱 단계 및 마스터링 단계에서 많은 불편을 야기한다. 만약 고정된 예산에서 컴퓨터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램의 용량과 CPU 성능 위주로 PC를 구성하는 것이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DAW 작업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자신이 평소 유창한 게임실력으로 키보드, 마우스와 혼연일체의 수준이라면 이것들만으로도 시퀀스 창에 일일이 음을 찍어 충분히 작곡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피아노 연주법을 체득하고 있어 건반이 익숙하다면 저렴한 Midi 건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쾌적한 작곡 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다. Midi 건반은 건반의 개수에 따라 적게는 휴대가 간편한 15개부터 그랜드 피아노와 동일한 81개까지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다양한 브랜드의 키보드가 있지만 가격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건반의 센서가 얼마나 미세한 힘의



사용 중인 Nektar 사의 Impact 49+와 AKAI FIRE

차이까지 가늠할 수 있는 지이다. 이러한 부분을 DAW 내에서 Velocity라고 한다. 다음으로 건반의 느낌이 얼마나 실제 피아노와 비슷한 지이다. 저렴한 Midi 건반의 경우 멜로디언을 연주하는 것 같고 비싼 건반은 실제 피아노와 비슷하게 묵직한 느낌이 든다. 민감하지 않다면 입문용으로 Akai, Nektar, Alesis와 같은 중저가 브랜드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또한 요새 Midi 건반의 경우 드럼패드와 노브를 내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컨트롤 요소들은 향후 자신의 작곡 과정에 효율성을 더해 줄 수 있다. 관심이 있다면 건반 형태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Midi Controller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사용 중인 Focusrite 사의 Scarlett 2i2 2세대

Midi 건반과 Controller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가상 악기로 작곡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집에 있는 일렉트릭 기타나 마이크의 소리를 DAW로 녹음하고 싶다면 추가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현재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하여 사용 중인 디지털 피아노, 전자 기타, 마이크

홈 레코딩용으로 많이 쓰이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경우 Input 단자가 XLR 단자, TS 단자를 겸용으로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단자당 하나의 모노 소스의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고 2개를 동시에 연결해 스테레오로 녹음도 가능하다. 작곡 환경에 따라 녹음 시 한 번에 여러 개의 악기를 동시에 연결해야 한다면 Input 단자의 개수가 많은 장비를 구매하면 된다. 하지만 1인 작곡 환경에서 대부분 마이크 따로 기타 따로 녹음을 하기에 번거로움만 감수한다면 2개의 Input 단자면 충분하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또 다른 장점은 Playback 오디오의 Latency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디오 Latency는 건반을 눌렀을 때 즉각적으로 음이 나오지 않아 박자를 맞추는데 헛갈리게 되고 답답한 상황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Windows OS는 Direct Sound로 입출력을 하므로 소프트웨어와 사운드 카드 간 Latency가 발생한다. 이러한 Latency를 줄이기 위해 독일의 Steinberg사에서 만든 ASIO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획기적으로 Latency를 줄일 수 있다.

레퍼런스 모니터링

정확한 믹싱을 위해서는 듣기 좋게 왜곡된 소리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스피커와 헤드폰은 원음을 왜곡시켜 듣기 좋게 느끼도록 저음과 고음이 강조된 V자 레퍼런스 응답을 갖는다. 모니터링용 스피커와 헤드폰은 정확한 믹싱을 위해 저음과 고음이 부스팅 되지 않게 Flat한 레퍼런스 응답과 좋은 해상도, 정확한 위상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믹싱과 마스터링 작업 시 패닝과 Effector 사용을 통한 스테레오 이미지 표현을 극대화하고 좋지 않은 소리를 걸러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니터링용 스피커는 Genelec, Yamaha, DynAudio와 같은 메이저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이 많다. 위의 업체에서 만드는 모니터링용 스피커는 대부분 고가의 물건이다. 가정용으로 구매하기에는 가격적으로 접근이 쉽지는 않다. 반면 모니터링용 헤드폰의 경우 상



사용 중인 DynAudio사의 LYD7 스피커



사용 중인 젠하이저사의 HD600 헤드폰



사용 중인 Audinst HUD-mx2 헤드폰 앰프



이상적인 모니터링 환경

대적으로 저렴하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3대 모니터링 헤드폰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젠하이저사의 HD 600 시리즈, 베이어다이나믹 사의 DT880, AKG 사의 K701을 홈 레코딩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모니터링용 스피커와 헤드폰이 둘 다 있으면 시작부터 든든하겠지만 취미로 시작한 홈 레코딩이 가산탕진과 가정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동시 구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 가지 Tip을 알려 드리자면 일단 레퍼런스 헤드폰부터 장만하고 일반 PC 스피커를 보조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대신 레퍼런스 헤드폰만으로 믹싱을 마무리하지 않는다. 헤드폰의 경우 스피커 기준의 정확한 스테레오 이미지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PC 스피커를 활용해 스테레오 이미지를 느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Panning은 스피커로, EQ는 헤드폰으로) 어떤 모니터링 헤드폰의 경우 입력 임피던스가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헤드폰 앰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고 임피던스 헤드폰을 지원하는지 알아보고 구매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나만의 홈 레코딩 공간을 채울 수 있다. 모니터링 스피커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청자와 정삼각형을 이루게 세팅한다. 스피커의 높이는 트위터와 미드 유닛 사이의 지점이 청자의 귀 높이면 이상적이다.

마무리하며

홈 레코딩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미생활로 접근하기 힘들었던 전문적인 영역에 한발 한발 다가갈 때 얻는 지적 만족감, 그리고 나만의 음악을 완성하고 남이 즐겁게 들어주었을 때 드는 희열감이었다. 앞으로 꿈이 있다면 홈 레코딩을 통해 계속해서 곡을 만들어 소규모 클럽에서 공연을 해 보는 것이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물밑 듯이 넘쳐나는 콘텐츠로 현재는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무엇이든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이다. 비단 홈 레코딩이 아니라도 각자 꿈꿔왔던 취미 생활이 있다면 오늘 한번 도전해 보자. 🎧